

“총선 끝, 인상 시작”…치킨값 줄줄이 올라

급내 치킨 9종 1900원씩 올려

파파이스 일부 메뉴 평균 4% ↑

급내와 파파이스가 잇따라 치킨 등 메뉴 가격 인상에 나섰다. 식품·외식업계가 그동안 가격인상을 자제해 왔지만, 4·10 총선이 지나면서 인상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급내는 가맹점 수익 악화를 개선하기 위해 치킨 메뉴 9개 가격을 1900원씩 인상한다. 2022년 이후 2년 만이다.

인상 품목은 ▲오리지널 ▲고추바사삭 ▲남해마늘바사삭 ▲오븐바사삭 ▲치즈바사삭 ▲갈비전향 ▲블금

치킨 ▲블케이노 ▲양념치킨 등이다. 대표메뉴인 오리지널은 기존 1만6000원에서 1만7900원으로, 고추바사삭은 1만8000원에서 1만9900원으로 오른다.

급내 측은 “최근 몇 년간 배달수수료, 인건비, 임대료 등 비용 상승으로 가맹점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소비자 편익을 위해 주요 제품의 가격을 2만원대 이하로 유지해 온 급내는 가맹점 수익 개선 요구를 수용해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 인상을 부득이하게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의 잇따른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격을 유지해 온 급내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배달수수료 등 각종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로 가맹점의 수익이 악화됐다”고 덧붙였다.

배달업 수수료 등 판매 비용 인상에 의한 가맹점 수익성 악화로 가맹점주들이 소비자가 인상을 요청해 왔다는 입장이다.

파파이스도 국내에서 치킨을 포함한 일부 메뉴 가격을 인상하고 배달 가격 차등제를 적용한다.

파파이스 코리아는 이날부터 치킨 메뉴, 샌드위치 메뉴, 사이드 및 디저트, 음료 등의 메뉴 가격을 평균 4%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인상 대상 품목의 가격은 예전보다 100~800원가량 올랐다. 다만 회사 측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인기 메뉴인 클래식 치킨 샌드위치, 스파이스 치킨 샌드위치의 가격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밝혔다.

배달 전용 판매가 또한 별도로 운영된다. 배달 메뉴의 가격은 매장 판매가에서 평균 약 5% 높은 차등 가격이 적용된다.

파파이스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으나, 최근 물가 인상 및 인건비, 배달 수수료 등 비용 상승 압박이 너무 커져 불가피하게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뉴시스

광주은행 K카드 스포츠 입장권 할인 이벤트

광주은행이 K리그에 이어 프로야구 정규시즌 개막 등 스포츠를 즐기기에 좋은 계절을 맞아 ‘K카드 인기 스포츠 입장권 할인 이벤트’를 마련했다.

1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광주FC와 제휴를 통해 출시한 ‘광주 FC 체크카드’로 광주FC 입장권 대표(온라인 예매 포함)시 경기당 1회 본인에 한해 홈경기 입장권을 40%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성인 기준 일반석(W석) 결제 시엔 최대 72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입장권’ 예매 시에도 경기당 1회 본인에 한해 2500원 특별 할인(특별석 제외) 혜택을 제공한다. 두 이벤트 모두 전월 이용 실적 없이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와 광주와뱅크(APP),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도권 판촉 행사로 전남 조생 양파 홍보 전남도는 고흥 거금도를 시작으로 조생양파 출하가 시작됨에 따라 전남농협, 거금도 농협과 함께 14일까지 수도권 판촉행사를 진행, 7톤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고흥 거금도 조생 햇양파를 25% 할인된 가격으로 특판을 추진, 소비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전남도 제공

3월 광주·전남 수출 감소세...무역수지 9억4700만달러 흑자

광주본부세관 수출입 동향...수출 광주 10.5%, 전남 5.3% ↓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이 전년에 비해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본부세관이 발표한 ‘3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3월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6.8% 감소한 52억 달러, 수입은 12.5% 감소한 42억53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9억4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3월 말 누계 기준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한 167억4500만 달러, 수입은 2.3% 감소한

122억97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4억48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광주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5% 감소한 14억5400만 달러로 2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입은 11.5% 증가한 9억24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기계류(4.0%)가 증가했고 수송장비(10.5%), 반도체(6.6%), 가전제품(30.0%), 타이어(9.6%)는 감소했다. 수입은 가전제품(6.3%)이 증가했

고 반도체(22.5%), 기계류(18.4%), 고무(16.4%), 화장품(11.1%)은 감소했다.

전남지역 3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5.3% 감소한 37억4600만 달러, 수입은 17.4% 감소한 33억29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억17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수출은 석유제품(13.4%), 철강제품(7.2%)이 증가했고 화장품(3.8%), 수송장비(72.6%), 기계류(25.5%)는 감소했다.

수입은 철광(18.7%)이 증가한 반면, 원유(12.9%), 석유제품(22.7%), 석탄(51.5%), 화장품(21.7%) 등은 모두 감소했다. /권형안 기사

산업부, 중동 리스크 확산에 석유·가스 비상대응태세 가동

정유사·관계기관, 수급·유가 점검...종합상황실 가동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인해 중동 리스크가 커진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가스 수급에 영향을 없도록 비상 대응태세를 가동한다.

안택근 산업부 장관은 15일 정유사,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석유·가스 수급 상황과 국내외 유가 영향 등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 차질이 없고, 운항상황도 이상이 없다고 파악 중이다.

다만 석유·가스 도입에서 중동의존도가 높고 에너지의 수급에 있어 서도 중동 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호르무즈 해협의 운항 차질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 비상시 수급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중동 주요국의 대응에 따라 유가가 급등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국제유가가 상승할 경우 국내 경제와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중동 사태와 관련해 석유·가스, 무역, 공급망 등 전반에 걸친 ‘종합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내의 유가 동향 분석·대응, 유조선·LNG선 운송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수급 차질 대비 비상대응계획 점검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김희 기자

전남,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참여 기업 공모

전남도는 중 소형 조선소 및 조선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 고급 안전장치 기술, 사물인터넷(IoT) 및 센서 등 스마트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 8개 회사를 선발, 최대 1억2000만 원을 지원, 기업 부담금은 20% 수준이다.

보건·안전·환경 기술 지원의 경

보건·안전·환경 시설 지원은 하

한정식 등 광주 대표 맛집 50곳 선정

지정패 부착·홍보·마케팅 지원...내달부터 신청·추천

한정식, 애호박찌개, 육전, 떡갈비, 보리밥 등 광주 대표 맛집을 소개합니다.

광주시는 맛의 고장 광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도시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4년 광주 맛집’ 50곳을 선정, 발표했다.

광주시는 맛집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격년제로 선정하던 것을 올해부터 해마다 선정하기로 했다. 또 평가의 객관성·신뢰성을 위해 평가위원 수를 3배 이상 늘리고 시민 온라인 평가방식을 도입했다.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 지정패 교부, 온라인 맛집 지도 제작, 소셜미디어 홍보 등을 지원하고, 식탁·조리장 등 시설을 개선하면 식품진흥기금을 우선 용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회에 걸쳐 199곳의 광주맛집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광주 맛집은 광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광주시는 오는 5월부터 2025년 광주 맛집 선정을 위한 신청 및 추천을 받는다. /권형안 기사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농 수익 쏙쏙

창업보육·실증단지·빅데이터센터 등 갖춰

임주농, 토마토 생산해 1인당 연매출 1억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청년 농업인 자립 기반 마련과 첨단기술 보급·확산에 효과노트를 하고 있다.

중공 2년차인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33ha 규모로 청년 창업보육, 임대형 스마트팜(5.76ha), 실증단지, 빅데이터 센터 등 첨단시설을 갖추고 있다.

20개월간의 창업보육 교육은 스마트팜에 특화된 전문교육으로, 매년 4~5월 중 52명을 선발하고, 현재는 1기부터 2기까지 75명이 수료했고, 3~4기 91명이 교육 중이다.

이 중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수료자 중 성적우수자 26명이 입주, 1인당 연평균 1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임대 기간은 3년, 임대료는 1

인당 연간 56만 원으로 저렴하다.

청년입주자 유지원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토마토를 재배해 1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임대형팜에서 쌓은 영농경험과 종자돈을 바탕으로 퇴소후 스마트팜 종합자금 대출을 활용해 전국 최고의 완숙토마토 스마트팜장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에과장은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청년 농업인 육성엔 물론 농업용 로봇, 무인농기계 등 실증·보급을 통해 첨단농산업 육성의 거점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4~5월에 전국 스마트팜 청년창업 교육센터 교육생 모집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희 기자

전남TP, 생산장비 고도화...경쟁력 강화

중기부 공모 선정...31억 들여 기존 장비 개선·신규 도입

전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15억9000만 원을 확보, 전남 테크노파크(TP)가 구축·운영 중인 기업 지원 생산장비 고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는 공모에 앞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비 수요조사를 진행해 활용도가 높고 수요가 많은 장비를 선정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장비 18종의 성능 개선과 신규 장비 3종 도입 등이 정이다.

전남테크노파크가 특화센터를 구축한 이후 수년여 경과한 신속속 산업센터, 세라믹산업센터, 레이저 산업센터의 노후 장비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산업 트렌드변화에 맞게 압출기 모니터링 시스템, 공간 광형상변환장치, 극저온 동결분쇄기 장비를 신규 도입해 다양한 기술사업화 지원한다.

그동안 전남도와 전남테크노파크는 신속속, 화학, 세라믹, 레이저, 철강, 우주항공, 조선, 에너지, 스마트제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9개 특화센터에 총 524대의 장비를 구축하고 시험생산을 통해 도내 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신속속산업센터는 전량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마그네슘 빌렛 제조 국산화 기술 확보, 세라믹산업센터는 희토류 광물인 인화이트륨의 과립분말 제품화 기초기술 확보, 레이저산업센터는 심근경색 진단카드 제조를 위한 레이저재터닝 기술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다. /김희 기자

순천시 산림조합금융 가곡지점 개점식

“상호금융 활성화·안정적인 금융사업 성장기반 마련”



들이 참석해 순천시 산림조합 내·외부를 둘러보고 개점을 축하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축사에서 “순천시 산림조합이 상호금융사업의 어려

순천시산림조합은 순천 고지1길 4번지에 산림조합금융 가곡지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점식은 지난 12일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을 비롯해 산림조합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조정록 순천시산림조합을 비롯한 전남동부지역 산림조합장, 순천지역관내조합장 및 조합 이사·감사

은 여건속에서도 조합장님의 탁월한 리더십과 직원들의 노력에 상호금융사업이 급성장해 여러 조합들에게 롤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조정록 순천시산림조합장은 “상호금융 활성화와 안정적인 금융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이용편의성과 권익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순조의 기사

보해 앞새주

‘택시운전사’ 특별판 출시



5·18 민주화운동 44주기를 앞두고 ‘오월의 기억’이 담긴 보해 앞새주 특별판이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보해앞새주는 15일 광주·전남 지역민들과 함께 해온 앞새주와

5·18 소재 영화 ‘택시운전사’가 만난 특별판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택시운전사-앞새주 특별판은 4~5월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된다.

앞새주 특별판 제품 라벨에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광주 시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의 이미지를 반영했다.

이 영화는 1980년 5월 광주 상황을 취재한 독일 기자 힌츠 페터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보해앞새주는 5·18 당시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용기를 기억하기 위해 라벨 하단에 ‘앞새주의 자리를 잠시 내어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를 계기로 광주·전남 지역민과 함께 오월을 기억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취지의 이벤트도 마련한다.

보해앞새주는 광주FC와 기아 타이거즈의 홈구장 경기에서 택시운전사-앞새주 특별판 관련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